Pelléas et Mélisande Suite, Op. 80

- □□

정보

개요

항목	내용
작곡가	Gabriel Fauré (1845–1924)
작품명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Op. 80
장르	극부수음악에서 나온 관현악 모음곡
원작	Maurice Maeterlinck의 희곡 *Pelléas et Mélisande*
작곡·편곡	1898년 극부수음악, 1900년 세 곡 재편곡, 1909년 네 곡 구성으로 확장
초연	1898년 6월 21일 런던 Prince of Wales Theatre에서 극부수음악 초연, Fauré 지휘
모음곡의 초연	1901년 2월 3일 파리 Concerts Lamoureux에서 세 곡 구성으로 초연, Camille Chevillard 지휘
현재 통용되는 범위	`Prélude`, `Fileuse`, `Sicilienne`, `La mort de Mélisande`의 네 악장

IMSLP: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Op. 80

Wikipedia: Pelléas et Mélisande (Fauré)

Fauré의 Op. 80은 Maeterlinck 희곡의 금지된 사랑과 질투를 네 개의 관현악 장면으로 압축한 모음곡이다. 1898년 런던 공연을 위해 쓴 극부수음악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음악에서 선별하고 재편곡한 연주회용 작품이라는 점이 범위를 결정한다. `Prélude`와 `Fileuse`가 희곡의 불안한 분위기와 일상적 움직임을 열고, `Sicilienne`이 독립적인 서정적 장면을 삽입한 뒤, `La mort de Mélisande`가 비극의 여운을 닫는다.

출판 정보와 판본

Fauré는 Mrs Patrick Campbell이 의뢰한 런던 영어 공연을 위해 1898년에 부수음악을 빠르게 완성했다. 공연용 관현악은 Charles Koechlin이 준비했으며, Fauré는 1900년에 `Prélude`, `Fileuse`, `La mort de Mélisande`를 더 큰 편성의 연주회용 악보로 다시 다듬었다. 이 세 곡을 묶은 모음곡은 1901년 파리에서 초연되고 Hamelle에서 처음 출판되었다.

1909년에 `Sicilienne`이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네 곡 순서가 형성되었다. Bru Zane은 이 악장이 당시 Koechlin의 관현악을 사용해 삽입되었다고 설명하며, Bärenreiter는 네 곡으로 정착한 판본의 1912년 12월

초연을 별도로 기록한다. 따라서 1901년의 세 곡 초연과 1909년의 추가, 1912년의 네 곡 공연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구분된다. Bärenreiter의 비평적 원전판 BA 7895(2016)는 Fauré 전집 제 4권 2분책에 근거하여 이 여러 단계의 자료를 대조한다.

원작과 모음곡의 범위

희곡에서 Golaud는 숲에서 만난 Mélisande와 결혼하지만 , 그녀와 이복동생 Pelléas 사이의 친밀함을
의심한다. 이 관계와 질투가 폭력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작품의 큰 배경이다. 1898년 극부수음악에는
노래와 짧은 막간을 포함한 약 18개의 번호가 있었고, 현재의 Op. 80 네 악장은 그 전체를 재현하지 않는다. 특히 원래 공연에 있던 성악 번호를 네 악장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소요 시간

연주회용 네 악장 모음곡은 대체로 17~20분이 걸린다. LA Philharmonic은 약 18분, Philharmonie de Paris 는 17분 52초의 예를 제시한다. 자료에 따라 약 15분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템포와 발췌 여부가
다른 공연일 수 있다. 원래 극부수음악 전체는 별도 범위이므로 , 그 자료에 기록된 약 30분의 시간과 이
모음곡의 시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편성

연주회용 모음곡은 플루트 2(제 2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2(제 2는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팀파니, 하프와 현악기로 편성된다. 이 큰 편성은 Koechlin이 극장 공연을 위해 준비한 상대적으로 작은 관현악과 구별된다. 따라서 극장판의 음향과 Fauré가 다시 쓴 연주회판의 울림을 같은
악보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네 악장의 장면 기능

Prélude

Quasi adagio 의 느린 흐름은 희곡의 첫 장면에 놓인 정적과 불길한 예감을 만든다. LA Philharmonic은 이 음악을 Golaud가 Mélisande를 발견하는 상황과 연결한다. 낮은 현의 어두운 바탕 위에 관악 선율이
나타나지만 , 특정 인물의 동기를 직접 묘사하기보다 숲과 운명의 모호함을 먼저 제시하는 도입부로 기능한다.

Fileuse

Andantino quasi allegretto 의 반복적인 음형은 물레질의 규칙적인 동작을 연상시킨다 . 짧은 움직임이
이어지는 동안 독주 오보에가 목관의 색채를 선명하게 만들며, 앞뒤 악장 사이에 인간적인 일상을 놓는다. 이 악장은 극적 사건을 전진시키기보다 , 평온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 남아 있는 불안을 가볍게 흔든다.

Sicilienne

Allegretto molto moderato 는 플루트와 하프, 피치카토 현악기의 조합으로 투명한 음향을 만든다. LA Philharmonic은 이를 샘의 장면과 연결하지만 , 1909년에 추가된 이 악장은 독립적인 서정 장면으로도 연주된다. 규칙적인 시칠리아 춤 리듬과 부드러운 선율이 비극의 중심에서 잠시 다른 시간감을 열어 준다.

La mort de Mélisande

Molto adagio 는 Mélisande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결 악장이다. 선율은 크게 폭발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가라앉고, 관현악의 층이 서서히 겹치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을 남긴다. 앞의 세 장면에서 축적된 어둠과 서정성이 여기에서 하나의 느린 종지로 수렴한다.

극장판에서 연주회판으로

1898년의 음악은 희곡의 대사, 장면 전환, 노래와 함께 울리도록 설계되었다 . Fauré가 1900년에 세 곡을 재편곡한 작업은 그 기능을 독립된 관현악 감상으로 바꾸었고, 1909년의 Sicilienne 추가는 모음곡의 대비를 넓혔다. 현재의 네 악장은 원작 희곡의 줄거리를 순서대로 들려주는 서곡이 아니라, 연극에서 추출한 분위기와 장면을 새 순서로 묶은 작품이다.

주요 자료

Bärenreiter, Pelléas et Mélisande, Op. 80 전곡판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Op. 80 서지 기록
Bru Zane Mediabase, Gabriel Fauré의 Pelléas et Mélisande
LA Philharmonic, Suite from Pelléas and Mélisande Philharmonie de Paris, Pelléas et Mélisande, Op. 80